

## II-1 고창신활력산업단지에 첨단 ESG기업 유치

추진부서 (사업주체)	신활력 경제정책관 (고창군)	팀장	최진호 (2345)	담당자	채철웅 (2354)	추진율	전체대비 100%	23년대비 100%
구분	연도별 목표		세부 추진실적					
2022	3분기	◦투자유치 지원단 구성	◦ 투자유치 지원단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					
		◦협업체계 구축	◦ 기업유치 협력 추진단 구성 및 운영 ◦ 기업들의 신속한 투자유치를 위해 협업체계 구축 추진 — 기획예산실, 종합민원실, 환경위생과, 상하수도사업소					
	4분기	◦기본조례 개정	◦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3회)					
		◦명칭 변경	◦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고창일반산업단지 명칭 변경 설문조사 고창일반산업단지 → 고창신활력산업단지 명칭 변경 완료(‘23.3.)					
2023	1분기	◦고창산단 동영상 제작 ◦ESG기업 방문 홍보	◦ 고창신활력산업단지 및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동영상 제작 — 스틸광고(용산역, 수서역) : 23.2.~3. — 영상광고(용산역) : 23.3.~4. — 스틸광고(용산역) : 23.6.~9. — 영상광고(용산역) : 23.7.~9.					
	2분기	◦ESG기업 방문	◦ (주)지텍 고창신활력산업단지 투자협약 체결(‘23.6.)					
	3분기	◦ESG기업 방문	◦ 삼성전자(주) 고창신활력산업단지 투자협약 체결(‘23.9.)					
	4분기	◦ESG기업 방문	◦ (주)에스비푸드 고추종합유통센터 매매계약 체결(‘23.10.)					
			◦ 민선 8기 기업유치 추진상황 설명회 추진(‘23.10.)					
2024		◦ESG기업 방문						
2025		◦ESG기업 방문						
2026		◦ESG기업 방문						

## I 위치도(조감도)



## II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 2026.
- 사업위치 : 고창신활력산업단지 일원
  - 조성면적 : 836,989㎡/ 분양면적 : 633,502.3㎡/ 입주면적 : 73,873.6㎡

구 분	분양면적(㎡)			비고
	합 계	산업용지	지원용지	
합 계	633,502.3	611,141.2	22,361.1	
입주면적	73,873.6	67,511.2	6,362.4	
잔여면적	559,628.7	543,630.0	15,998.7	
분 양 률	11.70%	11.04%	28.50%	

※ 분양(예정)가 : 산업용지(78,000원/㎡), 지원용지(200,000원/㎡)

- 총사업비 : 5.5억 원 (군비)
- 사업내용
  - 친환경 첨단 미래산업 ESG 기업유치 추진
  - 우량기업 유치 집중홍보와 투자기업 안정적 정착 서비스 제공

(단위:백만원)

연도	사업비	재원별 예산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총 액		550	-	-	550	-
2022		50	-	-	50	-
2023		200	-	-	200	-
2024		133	-	-	133	-
2025		120	-	-	120	-
2026		47	-	-	47	-

## III 지금까지 추진상황

- 첨단ESG 기업, 선도기업 등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적 활동 전개
  - 투자유치 지원단 및 기업유치 협력 추진단 구성·운영
  - 타깃·우량기업 대상 군수 서한문 및 투자환경 소개자료 발송(2회) : 280개사
- 고창일반산업단지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성공적인 기업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명칭변경 추진
  - 설문조사 결과 ‘고창신활력산업단지’ 선정 및 ‘23년 3월에 명칭변경 완료
- 투자기업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확대
  - 대규모 기업 유치를 위한 분양가 지원 비율 상향
  -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확대
  - 물류보조금 지원 확대 추진
- 고창신활력산업단지 홍보영상 게재

- 스틸광고(용산역, 수서역) : 2023. 02. 27. ~ 03. 30.(기간 중 1개월)
- 영상광고(용산역) : 2023. 03. 06. ~ 04. 06.(기간 중 1개월)
- 스틸광고(용산역) : 2023. 06. 19. ~ 09. 18.(기간 중 3개월)
- 영상광고(용산역) : 2023. 07. 01. ~ 09. 30.(기간 중 3개월)
- 고창신활력산업단지 투자협약 체결
  - (주)지텍(23.6.28.) : 33,000㎡, 150억원
  - 삼성전자(주)(23.9.25.) : 180,000㎡, 3,000억원
  - ※ 민선8기 기업유치 추진상황 설명회 추진(23.10.30.)
  - ※ 고추종합유통센터 매매계약 체결(23.10.30.) : (주)에스비푸드(267억원)
- 현장 중심의 기업애로 체계 구축 활성화를 위한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운영
  - 145건 건의(단순 22건, 단기 29건, 중장기 94건) ※즉결해소 22건, 단기 및 중장기 민원 진행 중

## IV 향후 추진계획

- 첨단 ESG 기업 중심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 투자유치 지원단 운영(연중 수시) 및 투자유치설명회 개최(상·하반기)
  - 투자유치 유관기관(전북도 기업유치추진단 등)과의 연결 채널 확보 및 관련정보 수집
  - One-stop 서비스 자원체계 구축을 통한 모든 행정절차(티켓 기업)의 발굴 상담, 유치, 사후관리)의 신속 처리
- 기업들의 신속한 투자를 위한 기업유치 협력 추진단 가동(연중 수시)
  - 협력부서 : 기획예산실, 종합민원실, 환경위생과, 상하수도사업소 등
- 유치기업 사후관리를 위한 기업애로 시스템 구축·운영(연중 수시)
  - 기업인과의 간담회 개최(연 1회 이상)를 통해 청취된 애로사항·건의사항 등의 관리카드화로 이에 대한 추진상황 및 제도 개선사항 지속관리



## 참고 추진실적 증빙자료 (관련 문서 및 사진)

투자유치 지원단 구성·운영(22.08.24.)

문서번호	신활력경제정책관-25493	담당자	팀장	정책관	부군수	군수	결재
보존기간	5년	채정웅	최수화	이영준	고희	심석원	
결재일자	2022. 8. 24.						
공개여부	여						

### - 고창일반산업단지 - 투자유치 지원단 구성·운영 계획



기업유치 협력추진단 구성·운영(22.12.29.)

문서번호	신활력경제정책관-25493
등록일자	2022. 12. 29.
결재일자	2022. 12. 29.
공개여부	대국민 공개

주무관	기업유치팀장	신활력경제정책관	부군수		
채정웅	최수화	이영준	노형수	진광 2022. 12. 29.	
협 조		기획예산실장 총합민원실장 환경위생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수 배기영 강필구 홍광희		

### 고창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 협력추진단 구성·운영 계획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

투자유치 지원단 위촉 및 간담회(22.09.23.)



참고 추진실적 참고자료

삼성전자(주) 투자협약 체결(23.09.25.)



민선 8기 기업유치 추진상황 설명회 추진(23.10.30.)





**참고 추진실적 참고자료**

(주)지텍 투자협약 체결 (23.06.28.)



(주)에스비푸드 투자협약 체결 (23.10.27.)



## 참고 추진실적 참고자료 (언론보도)

전북중앙

2023년 06월 29일 목요일 012면 지역



고창군은 28일 고창군청 2층 회의실에서 심덕섭 군수, 임정호 군의장, ㈜지텍 김하준 대표를 비롯한 기업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텍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 (주)지텍 고창신활력산업단에 투자

#### 투자협약체결...1만평에 3년간 300억 규모 투자

반도체 제조용 원료 등을 생산하는 주)지텍이 고창군에 투자를 결정했다.

고창군은 28일 고창군청 2층 회의실에서 심덕섭 군수, 임정호 군의장, ㈜지텍 김하준 대표를 비롯한 기업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텍(대표 김하준)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지텍은 경기도 화성시에 본사를 두고 있고, 통신소자형 반도체 관련 제조업체로, 고창신활력산업단지에 1만평 규모로 올 하반기부터 생산설비 150억원 투자를 시작으로 3년간 총 300억원 규모를 투자할 예정이다.

고창군은 민선8기 1년간 우량기업 유치에 위해 투자유치 지원단을 발족해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이어나갔고, 투자기업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도 확대하고 있으며, 이번 ㈜지텍과의 대규모 투

자를 계기로 고창신활력산업단지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고창군에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결정해준 기업에 감사드린다"며 "군에서도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고창신활력산업단지에 첨단ESG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창=김준원기자 jwkim@



## 참고 추진실적 참고자료 (기업유치 관련 언론보도)

전북타임스

2023년 09월 26일 화요일 001면 종합

# 삼성전자, 고창에 대규모 첨단물류센터 짓는다



국내를 넘어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전자가 고창신활력산업단지 3천여평을 투자해 호남권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조성한다.

전북도와 고창군은 이같은 내용의 투자협약을 삼성전자와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전북도에 삼성이 대규모 사업장을 구축한 최초 사례이자 민선8기 들어 새만금 외 지역에 2천억원 이상을 투자한 첫 대규모(관공 제외) 투자 사례이다.

협약식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 심덕섭 고창군수, 윤준병 국회의원, 윤여봉 경제통상진흥원장, 삼성전자㈜ 김동욱 부사장을 포함한 임원들이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수원시에 본사를 두고 반도체와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초일류 기업으로 남부지역의 원활한 물류유통을 위해 호남권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 고창 신활력산단에 3천억원 투자, 스마트허브단지 조성 직·간접 500여명 고용, 전북에 첫 대규모 투자

이번 투자협약에 따라 삼성전자는 고창신활력산업단지 5만4천여평을 대입해 자동화 기술이 접목된 첨단 물류센터를 건립한다.

물류센터는 연내 건축설계 및 인허가 승인을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올해 안으로 착공, 26년 내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삼성전자는 물류센터 조성을 위해 총 3천여평을 부지하고 5백여명의 직·간접적 고용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대기업인 삼성전자의 전북 투자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전북에서 기업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삼성전자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심덕섭 군수는 "삼성전자가 고창군

에 첫 대규모 투자를 함에 따라 앞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활성화에 큰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투자협약을 신호탄으로 고창신활력산업단지에 첨단ESG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협약은 최근 집중 기업유치 중인 새만금 외 지역에서 전해지는 대규모 투자로 시·군의 지리적 특성, 차별화된 인센티브 등을 활용한 성공적인 투자유치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했다.

도는 앞으로도 시·군별 강점과 특성화 전략을 바탕으로 14개 시·군에 골고루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고창=조종욱 기자



- 109 -

## 참고 추진실적 참고자료 (기업유치 관련 언론보도)

전라매일

2023년 10월 31일 화요일 007면 지역

〈심덕섭 고창군수〉

### “고창 신활력산단, 투자유치로 지역 선도”



심덕섭 군수, 30일 민선8기 기업유치 추진상황 설명회에서 직접 PT

민선8기 1년에 삼성전자, 지텍, 에스비푸드 등 3개 기업유치 성과

“삼성전자 등의 투자유치로 지역 산업 생태계의 판도를 바꿀 것”

심덕섭 고창군수가 ‘민선 8기 기업유치 추진상황 설명회’에서 직접 무대에 올라 PT를 발표하며 “지역 산업생태계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

앞서 고창군은 민선8기 들어 주)지텍, 삼성전자(주), 주)에스비푸드 등 3개 기업유치를 성공시켰다. 이를 통해 70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고창신활력산업단지 기준 45%의 분양률을 보이며 군민들의 관심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세계 초일류 대기업 ‘삼성전자’는 신활

력산단 18만㎡에 3000억 원 투자해 스마트허브단지를 구축한다. 민선 출범이후 고창군의 기업유치 사례(관광제외) 중 투자규모가 가장 크다.

삼성전자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종합물류센터(CDX) 이전 등을 추진하며 권역별 최첨단 자동화 시설이 구축된 물류센터건립 계획을 추진중이다. 고창 스마트허브단지의 경우 투자규모와 건설과정을 따져 볼 때 생산유발효과 3,048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314억 원, 고용유발효과 2,450명으로 분석(전북연구원)됐다.

또한, 지텍은 통신소재형 반도체 관련

제조업체로, 신활력산단 3만3,000㎡(1만평)에 생산설비 150억 원 투자를 시작으로, 3년간 총 300억 원 규모를 투자할 예정이다.

에스비푸드(울리고당·물엿 제조) 역시 고추종합유통센터를 활용해 올 하반기부터 생산설비 40억 원 투자를 시작으로 2년간 총 200억 원 규모를 투자한다.

이날 설명회에선 고창군이 유치에 성공한 기업들의 공통점은 ‘친환경·미래첨단 산업’에 초점이 맞춰졌다. 물류센터나 통신소재 반도체의 특성상 용수는 적게 사용하고 오·폐수 발생량이 적어 주민생활 피해나 주변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날 설명회장을 꼭 채운 주민들 역시 고창군의 친환경·첨단기업 유치를 환영하며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 주민은 “미래 성장 가치가 있는 기업들이 들어와 젊은이들이 마음껏 일하고, 지역에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민들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신활력산단이 고창군을 비롯해 전라북도 산업구조의 판을 바꿀 알짜 산업단지로 대변시킨다”며 “앞으로도 더욱 공격적인 기업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박동현 기자